

2023. 11. 27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2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한성백제박물관 전시기획과

전시기획과장

조영훈

2152-5910

학예연구사

백길남

2152-5911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: 2쪽

누리집  
(메뉴)

baekjemuseum.seoul.go.kr  
(보도자료)

### 한성백제박물관-일(日) 카시하라 고고학연구소, 문화유산 및 고고학·고대사 분야 교류 협력

- 지난 20일(월), 일본 대표 발굴조사연구기관인 ‘나라현립카시하라 고고학연구소’와 업무협약
- 한일 양국 고고학·고대사 분야 공동 연구 및 특별전 개최 등 협력 사업 추진 및 인적 교류 기대

- 한성백제박물관(관장 김지연)은 일본 나라현립 카시하라 고고학연구소(소장 靑柳 正規/아오야기 마사노리)와 지난 11월 20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‘문화유산 및 고고학·고대사 분야 교류 협력’을 위해 업무 약정(MOU)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.
- 일본 나라현립 카시하라 고고학연구소는 1938년에 개소한 이래, 일본 고분시대의 대형 무덤과 아스카시대의 고대 도시 유적 등을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본 대표 발굴조사기관으로 부속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.
- 한성백제박물관은 카시하라 고고학연구소와 2022년 11월부터 업무협의를 시작하여, 한일 양국의 문화유산 및 고고학·고대사 분야의 학술교류와 공동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

의하였다. 이번에 업무협약의 내용을 약정안에 정리하여 1년 만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.

- 약정의 주요 내용은 ▲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인적 교류, ▲ 소장품 대여, 자료 제공, 전시회 개최, ▲ 공동 조사연구, ▲ 학술 세미나, 강연회 개최 ▲ 학술보고서·전시도록 등 간행물 상호 교환 등이다.
  
-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일본 고분과 아스카, 나라 등 고대 도성 유적 연구에 앞장선 나라현립 카시하라 고고학연구소와 교류하여 백제와 왜의 관계를 규명하고 고대 도시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”라며 “앞으로 한성백제박물관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동아시아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 고대 역사 도시의 역사·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와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**붙임**      **업무 협약식 사진**

